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May_Vol.184

Vision
2020





Cover story

고객과 사회가
Clear Choice 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목표를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다.’ - 미켈란젤로

삼정KPMG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우리의 비전 ‘The Clear Choice’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객과 사회가 Clear Choice 할 때까지,
삼정KPMG는 비전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Contents

May 2018 Vol.184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FY2018 삼성KPMG**
삼성KPMG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 06 **Team Story**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 08 **Client+**
OSB 저축은행
- 10 **Market Reader**
Digital Tech로 변화할 기업의 미래
- 12 **Expert's Advice**
IFRS16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은?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감동 Plus**
“우리 가족, 고마워요! 사랑해요!”
- 16 **인재양성소I**
FY2017 최고의 인재는 누구?
- 18 **인재양성소II**
FY2017 우수인재 해외 연수 스토리
- 20 **KPMG Tour**
니가 가라 하와이! 화산섬 ‘빅아일랜드’
- 22 **Culture & Etiquette**
톨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의 문화와 에티켓
- 24 **Talk+Play+Love**
이거 하나면 인테리어 분위기 UP!
- 26 **KPMG Story**
삼성인에게 물어본 KPMG Story!
- 28 **Samjong News**
‘2018 KPMG 한·일 Partner Summit’ 개최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Vision 2020 달성 결의' 삼성KPMG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 개최

삼성KPMG는 지난 4월 25일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삼성KPMG의 FY2017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FY2018 사업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Vision 2020을 향해 나아가는 FY2018을 기대하며,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 현장을 살펴본다.

FY2017, KPMG Global Board Country 중 최고 성장률 기록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가 지난 4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김교태 CEO를 비롯해 고문단, 각 Function 리더, 파트너 그리고 Manager 직급 이상의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Senior Manager 직급 이상이 아닌 Manager 직급 이상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임직원들에게 삼성KPMG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삼성KPMG 김교태 CEO는 "여기 모인 분들을 비롯해 삼성KPMG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FY2018에 이뤄갈 목표와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교태 CEO는 임직원들을 노고를 격려하고자 'FY2017 우수 인재 포상식'을 열어,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팀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부상으로 포상금 및 휴가를 지급했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삼성KPMG는 FY2016에 이어 FY2017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KPMG Global Board Country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입회계사 최다 채용과 함께 한국공인회계사 실무연수 종합 평가에서 성적우수자를 최다 배출해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며 Big2 체제를 형성해왔다. 건강한 성장을 이뤄온 만큼 임직원 해외연수,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다. 무엇보다 지난 2월에는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을 출범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삼성KPMG는 '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 정신을 기반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감사부문은 원칙적이고 엄격

한 감사, 감사 보수 정상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통한 감사위원회 활성화 지원 등 회계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PCAOB의 Inspection 결과를 'No Comments'로 수감 완료하며 높은 감사 품질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M&A 리그테이블 1위를 기록한 재무부문은 주요 Landmark Deal 자문, 기업구조조정 시장 선도, 부동산 Big Deal 매각 성사, Financing 서비스 개발 및 확대 등 Big2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세무부문은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혁신을 통해 업계 정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비금융 및 Compliance 사업 강화,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으로 컨설팅부문도 3년 연속 건강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비전 달성 위한 FY2018 전략 제시 인재 존중 및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인으로!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삼정KPMG는 FY2016에 비전을 선포하고, 2년간 비전 달성을 위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왔다. 김교태 CEO는 초불확실성 시대, 감사제도의 급격한 변화, 엄격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우리의 비전 'The Clear Choice'를 위해 한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삼정KPMG는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고객과 사회에 Clear Choice를 이루며, 2020년에는 매출 6,000억 달성으로

확고한 Big2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를 마련하고, 높은 윤리의식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조직,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이 인정되는 조직으로 거듭나 신뢰받는 삼정KPMG로 거듭나고자 한다.

삼정KPMG는 Vision 2020 달성을 위해 '우수인재 확보와 육성', 'Business Development', 'Quality Performance'를 FY2018 전략으로 제시했다. Human Being으로 함께 성장하는 존중받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항상 그래 왔었지'라는 타성을 타파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고객 중심의 사고로, 고객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답을 구하며 시장을 선도해 갈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교태 CEO는 "삼정KPMG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터의 주인입니다.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라며, 법인을 이끄는 주인은 3,000여 명의 삼정KPMG 구성원임을 강조했다. 주인의식을 갖고 Vision 2020에 한 뜻을 모아 나아가면 이를 수 있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삼정KPMG가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지난 FY2017을 성장으로 이끌어 온 만큼, FY2018에서도 건강한 성장을 이뤄 'Vision 2020: The Clear Choice'를 실현해 가기를 응원해본다.



“
삼정KPMG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일터의
주인입니다.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

성공적인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치 살얼음판과도 같던 한반도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오는 5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논의되고 있는 지금, 국내 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2014년에 설립된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의 대북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남북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우리 기업, 대북 비즈니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평해튼(Pyonghattan)’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이는 아파트와 쇼핑 센터가 밀집한 평양을 뉴욕의 맨해튼과 비유하며 생긴 신조어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탈사회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신흥 부유층의 등장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 붐도 일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 기업들도 북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북한 진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의 따뜻한 봄날,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의 논의되고 있는 지금 국내 기업들은 대북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대북 비즈니스는 많은 기회 요인만큼이나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제도, 산업 등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 북한의 정치·제도 환경과 인프라 여건 등에 대한 정보가 사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경제협약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투자비 회수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 인력을 미리 육성해야 하고,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 투자를 집행할 것인지, 투자를 위한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투자자의 상호협력 하에 남한이 향후 경제협력과 개발사업 진행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신뢰를 북한 당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 대북 진출 전략 자문

- 산업별/기업별 북한 진출 전략 자문
- 경제특구 등 진출 전략 자문

▶ 대북 진출 투자 자문

- 진출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 진출 대상 사업에 대한 CDD (Commercial Due diligence)/FDD(Financial Due diligence)/TDD (Tax Due diligence)
- 진출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 투자방식/구조 수립 및 자금조달(Financing) 자문
- 합작회사 설립/운영 및 투자금 회수 방안 자문

▶ Infra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투자 전략 수립
- PPP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비 사업타당성 평가
- 인프라 금융구조 수립 및 자원조달 (PF) 관련 자문

▶ Assurance

-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 자문
- 남북협력기금 지원금에 대한 원가정산

▶ 지속가능발전

- 북한 지속가능발전 정부정책 수립 자문
- 북한 개발 연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자문
- 북한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한 민간 진출 자문



대북 비즈니스를 위한 산업별 전문가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에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해 민간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장기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남북경제협력 동반자 역할 해나갈 것!

삼정KPMG는 2014년 6월, 남북경제협력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북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북한 진출 전략, 사업 타당성 평가, 자원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감사, 북한/통일 비영리단체의 임의 감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회계검증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회계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성공단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 '북한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해 보자'는 고민을 지속해왔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2015년 12월부터 2여 년에 걸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북한 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한반도 경영시대를 함께 준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대북 비즈니스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서비스 라인을 확대해 나가 우리 기업들과 함께 북한을 누비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의 최고 장점은?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감사를 통해 재원 현황, 사용처 등 남북경협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감사 업무로 개성공단 내의 세무, 회계 등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로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석 전무 (리더)**

Tel. 02-2112-0723 / E-mail. kwangseokkim@kr.kpmg.com

“Audit, Tax, Advisory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재와 미래, 북한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진희 부장**

Tel. 02-2112-7454 / E-mail. jinheecho@kr.kpmg.com

대북 비즈니스를 위한 산업별 전문가

- 인프라·건설: **김호진 상무** hkim68@kr.kpmg.com
- 유통·소비재: **박정수 상무** jungsoopark@kr.kpmg.com
- ICT: **한상현 상무** sanghyunhan@kr.kpmg.com
- 에너지: **천상훈 이사** scheon@kr.kpmg.com
- 자원: **임상진 부장** syim@kr.kpmg.com
- 자동차: **김재연 상무** jaeyeonkim@kr.kpmg.com
- 관광: **권준석 상무** joonseokkwon@kr.kpmg.com
- 자원조달: **김이동 상무** yidongkim@kr.kpmg.com
- 지속가능발전: **김정남 이사** jungnamkim@kr.kpmg.com

책 소개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비즈니스 기획의 관점에서 북한의 투자 유망 분야를 소개하고, 남북경협의 단계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부 새로운 시장, 북한을 말하다

2부 새로운 기회, 비즈니스를 발견하다

• 1장 시작은 어떻게 할까?

북한 재건과 남북경협의 시작, 인프라·건설 산업

• 2장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북한을 바꾸는 유통·소비재 산업

• 3장 문은 언제 열릴까? 변화의 첨병, ICT 산업

• 4장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 남북경제협력의 기반, 에너지산업

• 5장 너의 잠재력은 어디까지?: 유망한 자원산업

• 6장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제조업의 꽃, 자동차산업

• 7장 기회가 오고 있다: 북한 경제개방의 열쇠, 관광산업

• 8장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북한 개발사업의 자원조달 방안

• 9장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적안:

대북투자에 필요한 북한의 법·제도 브리핑

3부 새로운 시각, 지속가능발전의 길을 찾다

서민금융 선진화, OSB 저축은행

OSB 저축은행(이하 OSB)은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인 오릭스코퍼레이션을 최대주주로 맞이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스마일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기간 없는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데 성공했으며, 2017년 말 자산 2조 원 규모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수익성과 건전성, 금융기관의 핵심

2013년 새로운 주주로 참여한 올림푸스 캐피탈 홀딩스 아시아 등 국제적 투자가 그룹은 제일은행 행장으로 재직했던 로버트 코헨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다. 또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제일은행에서 Decision Science로 활동했던 킷스 샤켓 사장과 장찬 부사장을 경영진으로 영입해, 수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 있다. 대출 자산은 2013년 3천억 수준에서 2017년 말 약 1조6천억으로 약 5배 이상 성장했고,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013년 6월 17%에서 2017년 12월 2.47%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주주의 투자수익을 나타내는 ROE는 최근 4년 평균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Decision Science와 핀테크, 원천 기술에 집중

OSB는 은행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심층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영향이 큰 부분에 기술 혁신을 집중하는 핀테크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사업장을 비우고 영업점을 방문하기 힘든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해 ‘스마트기기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개발했다. 고객의 간단한 기본 정보만으로도 본인



이 받을 수 있는 금리,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시각화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서비스이다. 특히 인터넷 뱅킹 기반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모바일 장치의 활용성이 인정되어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번호 제10-1716891호). 이는 화려한 단어만을 사용해 핀테크 기업임을 강조할 뿐, 독자적인 기술이 없는 다른 금융 기관과는 차별화된 OSB만의 장점이다.

또한 OSB는 저축은행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내부에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사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등급에 기반하여 고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저축은행 고객의 특성이 더 반영된 등급을 사용하여 많은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기업문화, 일과 생활의 균형

OSB만의 특별한 문화는 매 반기마다 경영진이 재무 성과와 경영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문화인 ‘업데이트 미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업데이트 미팅에는 전 임직원이 참석하며,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 활동과 식사도 함께하는 자리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1년간 회사의 성과에 기여한



1. OSB저축은행 서초 사옥 전경
2. President Club 2017 단체사진
3. 전 직원이 참여한 업데이트 미팅 현장
4. OSB사회공헌 활동, 후원물품 전달식

우수사원, 'President Club'을 발표한다.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가족 등 동반 1인을 포함해 2박 3일 해외여행을 제공한다. 경영진은 동반한 가족에게 직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희생해 준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외에도 OSB는 성과 중심의 기업문화로 불필요한 권위주의식이나 야근, 회식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특히 일 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5영업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신입 사원에게도 연차를 당겨쓰지 않고, 첫해부터 15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구성원, OSB 저축은행

앞서 언급한 전 직원 업데이트 미팅에서는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OSB 나눔 바자회'가 기획, 진행됐다. 직원들의 기부 물품으로 진행된 바자회와 경매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에 200%를 회사가 추가로 지원해 약 3,1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으며, 'OSB 나눔주간'을 선정해 총 15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등 시설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

다. 이러한 성과는 직원들과 공유되었고, 만족도가 높아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변화,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할부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지자, 과거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넘고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 요건을 갖춘 OSB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업권 최초로 할부금융업을 등록했다. 핵심에 집중하는 핀테크 전략을 활용, 고객과 판매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기존 캐피탈사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다수의 직, 간접 제휴 거래업체와 품목을 바탕으로 오토바이, 자전거, 건설/공작 기계, 의료기기, 생활 내구재 등을 취급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OSB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제공자로서의 본연의 목적에 더불어, 핵심에 집중하는 핀테크 전략으로 편리한 환경에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개인 고객, 할부금융 고객들의 상생 동반자로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저축은행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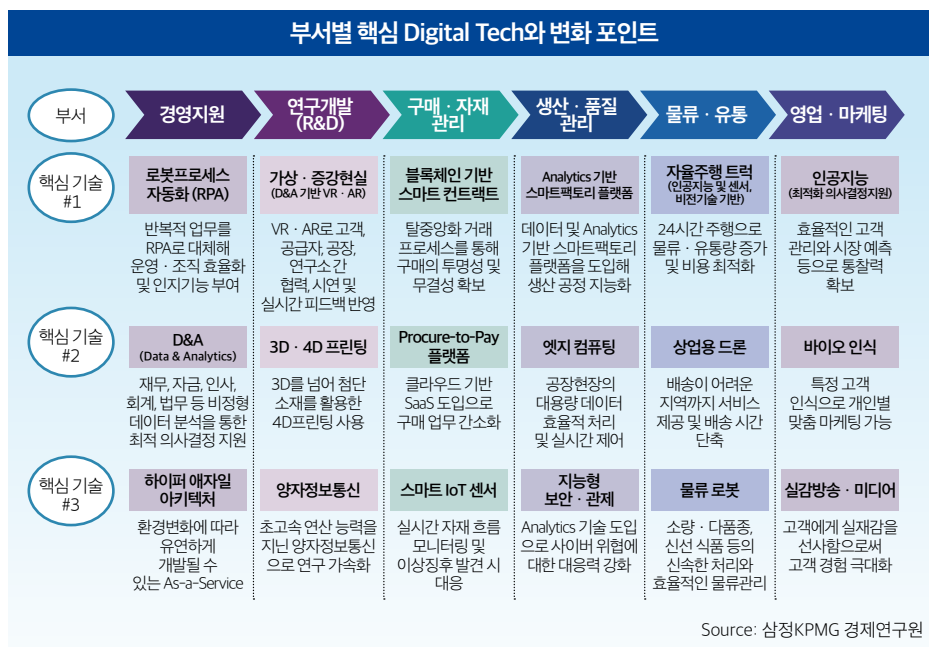
Digital Tech로 변화할 기업의 미래

|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기술, 시장의 판을 흔든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업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론칭과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기업의 각 부서에 어떻게 도입해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 기업의 각 부서에서 활용될 Digital Tech와 기업 도입 방안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기업의 각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는 18대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 일차적으로 국내외 주요 보고서를 통해 유망 기술을 리서치하고 이후 기술 상용화 수준과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광의의 정의로 설명되는 기술보다는 구체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구성하는 6개의 핵심 부서(경영지원, 연구개발, 구매·자재관리, 생산·품질관리, 물류·유통, 영업·마케팅)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기술이 어떻게 해당 부서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며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Samjong INSIGHT 59호>를 통해 18대 미래 유망 Digital Tech를 선정하고, 기업의 주요 부서에서 해당 기술이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킬지에 대해 살펴봤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때 필요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영지원 부서에서는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를 통해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여기에 'D&A(Data & Analytics)' 기술이 접목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될 수 있는 '하이퍼 애자일 아키텍처(Hyper-agile Architecture)'가 도입될 때, 업무의 프로세스 혁신을 이룰 것이다. 연구개발 부서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로 고객 피드백을 연구개발에 반영하며, '양자정보통신'으로 연구를 가속화하며, '3D · 4D 프린팅'으로 소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매 · 자재관리 부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프로큐어 투 페이(Procure-to-Pay) 플랫폼'을 통해 구매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 IoT 센서'로 자재 흐름을 보다 원활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 품질관리 부서는 '애널리틱스 기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으로 공장 지능화를 이루며, '엣지 컴퓨팅'으로 생산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향상하고, '지능형 보안 · 관제'로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물류 · 유통 부서는 '자율주행 트럭'으로 물류 효율화, '상업용 드론'으로 난배송 지역 물류 확대 및 배송 시간 단축, '물류 로봇'으로 신속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영업 · 마케팅 부서는 '인공지능'으로 소비자 분석력을 강화하고, '바이오 인식'으로 개인 맞춤화 역량을 제고하며, '실감방송 · 미디어'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사의 디지털 역량 평가 · 부서별 디지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기업에 Digital Tech를 도입할 때, 경영진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기업의 C-Level 임원들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Digital Tech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자사의 디지털 역량을 분석한 후, 전사적 차원에서의 기술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기술 도입 시 업무 중 어떠한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기술 도입에 따른 ROI(투자자본 수익률)와 TCO(Total Cost of Ownership)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과 조직의 변화관리가 병행되어야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 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경영 환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기범 연구원

Tel. 02-2112-7430

E-mail. kkim28@kr.kpmg.com

IFRS16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사항은?

새 리스 기준서인 IFRS16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2018년 중 회계 정보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IFRS16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삼정KPMG는 오는 5월 25일에 'IFRS16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IFRS16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삼정KPMG의 IFRS16 팀 리더를 통해 IFRS16은 무엇인지, 또 기업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삼정KPMG IFRS16 팀 리더
변영훈 전무

Q. 2019년에 시행되는 IFRS16은 무엇인가요?

A. 현행 리스 기준서에 따르면 리스는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는데,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에 따라 생긴 권리와 의무를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기준서인 IFRS16이 시행되면 리스 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리스 이용자 회계모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회계처리가 동일하여 리스 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운용리스 관련 부채 파악이 용이하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Q. IFRS16 도입은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A. 리스 이용자는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함에 따라 재무상태표 측면에서는 리스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동시에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손익계산서 측면에서는 기존 리스료가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 영업비용은 감소하고 금융원가는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업종(예: 해운, 항공, 유통업 등)의 부채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부채비율은 회사의 신용등급과 직결되고, 공급처관리, 차입약정, 투자약정, 입찰조건 등 다양한 부분에 재무비율 조건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리스기준서는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KPI 및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리스계약의 통합관리가 요구되며 예산수립 시 리스자산 관련 지출비용은 투자예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임차계약의 통합 분석 및 관리를 통하여 지출비용 절감(임차단가 효율화, 미활용 및 활용도가 낮은 임차자산 통합/해지 등)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새로운 리스기준서의 도입준비는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경영 효율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IFRS16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새로운 리스 기준서인 IFRS16은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2018년은 각 기업들이 리스 기준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새 리스회계기준이 공표됨에 따라 기업들이 그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사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모든 계약으로부터 리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의 식별, 리스와 비리스 요소의 분리, 리스료와 리스 기간의 판단, 리스 할인율의 결정 등 정보와 판단이 필요한 각각의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스기준서 도입을 위한 담당자나 팀을 지정하고 필요 시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여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100%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도 많이 생겨났다. 최근에 이슈를 모은 신조어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언택트 (untact)

접촉을 뜻하는 영단어 '컨택트(contact)'에 부정 접두사인 '언(un)'을 붙인 것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개념이 상품, 배송, 마케팅 등 산업 전 영역에 확산되고 있다. 배송에서는 지역자치단체나 편의점 등에서 운영 중인 무인택배함이 택배기사와 수신인의 대면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배송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비롯해 기술이 점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리테일테크(retailtech, 리테일과 기술의 합성어) 중 하나인 무인점포 역시 언택트의 서비스 일종이다. 언택트는 노동력과 대면접촉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싱귤래리티 (singularity)

'싱귤래리티'는 특이성, 특이점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는 '싱귤래리티'이며, 이 커다란 변화의 순간이 결코 먼 일이 아니라고 전망한다. 책 『특이점이 온다』에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예견하며, 그 시점은 2045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시점이 되면 AI가 도출해 낸 결과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AI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반려동물 '미등록' 과태료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반려동물 100만 시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역시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강화



	3월 22일부터 시행		1차 위반		2차		3차	
	현행	▶ 개정	현행	▶ 개정	현행	▶ 개정	현행	▶ 개정
동물유기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동물미등록	0만 원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안전조치 위반	5만 원	20만 원	7만 원	3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일반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5종: 목줄/입마개 미착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행복한 일터

감동 Plus

인재양성소 I

인재양성소 II

KPMG Tour

Culture & Etiquette

Talk+Play+Love

KPMG Story

Samjong News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 가족,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Channel>에서는 그간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감동 Plus> 칼럼을 준비했다. 삼정인이 전하는 가족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은 무엇일까?



‘엄마, 아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박선일 Associate (ICE2)

엄마, 아빠 저 선일이에요. 이렇게 환히 웃으며 찍었던 사진 이후 시간이 참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원만하지 못한 일 처리로 이렇게 환한 웃음 본지 오래된 것 같아 문득 마음이 아프네요. 언제나 죄송함과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는 아들로써,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새롭게 우리 가족이 된 수연이와 모두 함께 행복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우리 꽃길만 걸어요~’

서다은 Associate (IM1)

사랑하는 엄마, 내가 일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부정적인 말 해도, 항상 날 응원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 잘 할거라고 믿어주는 엄마. 가끔씩 사랑한다는 말을 쑥스럽게 전화로나마 전했지만, 돌이켜보면 엄마한테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날이 더 많았어.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과 힘이 나는 응원 덕분에 나는 어떠한 힘든 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어. 엄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고, 앞으로 우리 꽃길만 걸어요~!



‘동생 첫 휴가 때, 누나가 쏘게!’

강수진 직원 (JP)

산아 잘 지내고 있지? 누나야. 입대한 지 꼬박 일주일이지났구나. 우연히도 입사한 지 한 달 되던 날이었던 덕에(?) 누난 명색이 한 달은 채우고 첫 휴가를 쓸 수 있었다. 눈물 많은 엄마는 당연히 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들여보내는 순간엔 누나도 눈물이 핑 돌아서 티 내지 않으려고 혼났어. 지금은 외동딸이 된 마음으로 네 빈자리가 덜 느껴지도록 아빠, 엄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 그동안 용돈 노랴 불렀는데 첫 휴가 나올 땐 누나가 쏘대! 그때까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렴~ 안녕!



‘FY2017 삼정KPMG 우수 인재 포상 시상식’ 개최 법인과 함께 ‘건강한 성장’을 이뤄온 FY2017 최고의 인재는 누구?



‘FY2017 삼정KPMG 우수 인재 포상’을 수여 받은 영광의 얼굴들



‘감사함’이 제일 먼저!

‘Growth of the Year’

Deal Advisory5 본부장 김이동 상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사함’입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의 성장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고객의 응원 덕분에 이뤄졌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웃는 얼굴로 최선을 다해준 우리 본부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가 항상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남보다 더 땀 흘리는 모습 잃지 않겠습니다.



함께 한 고마운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Recruiter of the Year’ 최연택 S.Manager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기에, 혼자 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리크루팅 활동으로 본의 아니게 가정에 소홀히 하게 돼 아내와 26개월 된 딸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삼정 KPMG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회계사로서 성장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정명’, 수상에 걸맞은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

‘Professional of the Year’ 최세훈 S.Manager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정명(正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명(正名)’은 공자가 사용한 단어로 논어에 나오는 것인데, 이는 ‘모든 행위를 그 이름에 적합하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삼정KPMG에서 ‘Professional’로 저를 선정해 주신 바, 그 명칭에 걸맞은 전문가로서 결과를 창출하고, 동료 및 후배들과 함께 시장에서 손꼽히는 ‘Professional’이 되겠습니다.



Refresh를 얻은 것 같은 기분!

‘Innovator of the Year’

DPP-L&D 디지털 러닝팀 리더 신주일 대리

Virtual Classroom, 온라인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항상 학습자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마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듯한 ‘Refresh’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 필요한 디지털러닝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삼정KPMG는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FY2017 우수 인재 포상 시상식’을 열어 FY2017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개인과 팀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김교태 CEO가 7개 부문의 상을 12팀(본부 및 개인)에게 전달했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및 휴가를 지급했다. 지금부터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본다.



FY2017 삼정KPMG 우수 인재 포상 수상자

포상명	구분	수상자	수상 선정 이유	포상금/휴가
Growth of the Year 탁월한 역량과 협업으로 수익 측면에서 Quantum Jump를 이루어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여한 본부	본부	Deal Advisory5본부	2년 연속 최고 성장률 달성했으며, Landmark Deal 수임 및 성공으로 법인 위상을 제고했음.	200만 원
Professional of the Year 수행업무의 Quality, Risk Management, Efficiency 및 Realization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Engagement Team 또는 직원	개인	Domestic Tax2 최세훈 S.Manager	지방세 분야 업무 개발 및 수임하고 조세불복 분야 고성과를 달성했음. 자신의 성공적 경험과 지식을 본부 내 공유했으며, 일감 증여세 관련 서적을 저술함.	100만 원/3일
	팀 (공동 수상)	금리체계 서비스팀(B&F1, B&F2, B&F3, RCS)	Big4 중 독보적인 금리체계 전반 컨설팅 역량을 구축했고, 금리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정확히 예측함.	200만 원/2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문팀 (CM, Domestic Tax1, JP)	국내 기업 지배구조 자문 최다 수행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순환출자 해소함. 소유와 경영 분리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기업 가치 평가, Audit, 세무조정 등 Cross Selling 실현함.	200만 원/2일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수익 또는 장래성 측면과 법인의 중장기 전략에 기반하여 가장 우수한 신규 Product 또는 고객사를 개발한 Team	팀 (공동 수상)	IFRS 17 TFT (B&F1, B&F2, B&F3, Actuaries, MCS1)	보험사 보험부채 시가 평가에 선제적 대응, 세계 최고 수준 IFRS 방법론 정립과 시스템 구축 설계로 시장을 선도함. Big4 중 유일한 IFRS 17 End to End 서비스 역량을 갖춘.	200만 원/2일
		IFRS 15 TFT (CM, ICE1, ICE2, IM1, IM2, IM3, IM4, IGH, DPP)	선제적 연구, Marketing Package 개발을 비롯 대고객 세미나를 개최함. IFRS 15 신수익기준서 도입준비 분야 Best Firm 임을 입증함.	200만 원/2일
		국민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RCS)	‘Connected NPS’ 차별화된 제안 전략과 철저한 분석과 통찰력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임해옴.	200만 원/2일
Recruiter of the Year(신입) 우수 신입회계사 유치에 공헌도가 높은 직원 또는 팀	개인	ICE2 최연택 S.Manager	전년대비 수습회계사 14명을 증원 채용했고, 공채TF 멤버와 협업하며 출신수범해움. 고시반 인원 전담 Mentoring제 도입, 운영을 비롯 Office Tour, 간담회 실시, 고시반 방문 등 열성적 공채 활동을 해옴.	100만 원/3일
Probono of the Year 사회공헌에 기여함으로써 법인의 위상을 높이고 Community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적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한 직원	개인	IA/FR 이민형 Manager	삼정사랑나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대외 봉사 활동 연간 26회 참가했고, 모교인 대학교에 장학기금을 기부함. 100회 이상 헌혈로 대한적십자사 총재 포상(명예장)을 수여 받음.	100만 원/3일
GKP of the Year 각 나라에 파견된 Korea Desk 파견자 중 어려운 근무여건하에서도 삼정KPMG의 위상과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뛰어난 공헌을 한 직원	개인	해외파견(KPMG India) 조상용 S.Manager	새로 도입된 인도 통합부가가치세 설명 책자 발간, 배포함. 연간 50회 이상 세미나에 주 강사로 초빙, 발표했으며, 주요 고객사 경영진 인도 방문 시 세션을 진행함. 인도 내 두 번째 Korea Desk 설치에 크게 기여함.	100만 원/3일
Innovator of the Year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 직원 또는 팀	팀 (공동 수상)	DPP-L&D 디지털 러닝팀	신규 입사자 위한 온라인 설명 과정을 자체 개발해 교육 효과를 향상시킴. 2017년 GPS 교육 접근성 항목 12점 상승 및 Global 전략 상 Technology-Based Learning비율 목표 달성에 기여함.	200만 원/2일
		Central Services ITS 자산파트	노트북 모델 및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기존 리스에서 직접 구매, 교체 주기도 3년으로 늘려 비용을 연간 7억 절감함. (6년간 44억 절감)	200만 원/2일

*수상자/팀은 FY2017의 본부로 표기함



각 팀 수상자명단 (직급 생략)

- **Professional of the Year** 금리체계 서비스팀 박찬호, 임수빈, 구창모, 김종석, 허명식 / 롯데그룹 지배구조 자문팀 김시우, 김수광, 김중환, 정세환, 한미선, 이주형, 장지훈, 서윤정, 조형우, 박수정
- **Business Development of the Year** IFRS 17 TFT 박상욱, 정현호, 하지민, 신대철, 민경훈, 박병주, 김의신, 이병훈, 박보람, 한승진, 이주철, 강병학, 민병우 / IFRS 15 TFT 황구철, 김은실, 심정훈, 정세운, 이정주, 전현호, 이현경, 엄준식, 박은숙 / 국민연금 주거래 은행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박성철, 이은민, 허은석, 권용석, 박정국, 이동한, 이학범, 손중호, 방지영, 박연준, 한지훈, 황은숙, 김영훈, 김혜정, 서제성, 방인주, 박유나, 정용택, 양진환, 김지영, 이은정, 전지우, 정나연, 홍승태, 허필재, 임송이, 강기욱, 송정현, 김해인, 최재형, 김민정, 허성문, 김치연, 김수로, 이준형, 심규남
- **Innovator of the Year** 디지털 러닝팀 신주일, 도윤정, 심성원 / ITS팀 자산 파트 목민정, 이성주, 손지은, 최형식

캐나다 밴쿠버로 Go!

FY2017 우수인재 해외 연수 스토리



1. 옐로우나이프에서 본 경이롭고 아름다운 오로라 2. 연수 기간 중 함께 수업을 들은 삼정인들과

영어는 즐겁고, 오로라는 아름답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이창훈 S.Manager (Global Tax)

작년 11월 말, 2주간의 어학 공부를 통해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어요. 연수 기간 저는 평생 쉽게 해보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돌아가자는 막연한 계획을 세웠는데 운이 좋게도 밴쿠버에서 연수 중인 동료들과 연이 닿아 옐로우나이프에 오로라 투어에 다녀왔어요. 옐로우나이프에 도착했을 때, 영하 30도에 이르는 혹독한 환경에 놀랐으나 3박을 머무는 동안 2번의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을 수놓은 투명 커튼을 보는 순간 모든 이들이 탄성을 내뿔었고, 천천히 밤하늘을 옮겨가며 오묘한 빛을 내던 장막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몽클함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한 해가 금방 지나곤 하는데 연말에 기억이 남는 좋은 추억이 생겨서 좋았어요. 저는 2012년 초에 입사한 후 쉼 없이 달려왔고, FY2017에 우수인재로 선정됐어요. '과연 내가 우수인재 타이틀을 받을 만한가?'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책임감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온 노력이 미약하나마 성장의 발판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없이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대자연을 만끽하다! 법인 생활의 심표를 찍은 재충전의 시간

이수한 S.Analyst (Deal Advisory4)

2017년 10월, 2주간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야한다는 막연한 걱정을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FY2017부터 1~4차수까지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해 가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같은 차수로 온 타 본부원들과 함께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연수 중 제 앞의 영어 실력이 낱알이 드러나긴 했지만, 보름 동안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와 여행을 하는 등 다양한 삼정인분들과 교류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주말 일정을 이용해 로키 투어를 다녀왔어요. 밴쿠버에서 로키산맥이 있는 캘거리와 밴프를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장장 2,000km를 이동하는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침엽수림과 바위 사이로 훑날리는 실 폭포들이 어울려진 대자연의 모습은 여정의 고단함을 잊게 할 정도였어요. 레이크 루이스는 흡사 어릴 때 읽던 동화책을 읽으며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였고, 설산차를 타고 오르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의 자연의 경이로움은 눈에만 담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도시 생활을 벗어나 대자연을 만끽하며 법인 생활의 심표를 찍을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온 만큼 앞으로도 많은 삼정인분들을 보고 배우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목표예요.



3, 4. 함께 연수에 참여한 삼정인들과 떠난 로키 투어



삼정KPMG는 매년 법인의 우수인재로 선정된 삼정인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FY2017 우수인재들 역시 지난해 8월, 9월, 11월 3회에 걸쳐 캐나다 밴쿠버로 2주간의 연수를 다녀왔다. 영어학습은 물론, 자유여행을 통해 그동안 느끼지 못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호에서는 우수인재들이 보내온 연수 스토리를 들어본다.

5. 딸과 함께한 밴쿠버 연수
6. 딸과 홈스테이 주인 할머니와 찰칵!



가장 큰 기쁨은 낯선 땅에서 딸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구자면 Director (RCS)

작년 9월 고압게도 본부 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캐나다 밴쿠버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간만에 얻은 소중한 시간이라 큰 딸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딸과 단둘이 장시간 처음 있어보는 거라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고 수업을 듣고 함께 도시락을 먹고, 학원을 마치면 매일 매일 계획했던 곳을 방문하며 추억을 쌓았던 점들이 정말 좋았어요. 제일 행복한 순간 역시 낯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딸 아이와 함께 극복했다는 점이에요. 연수 전 날까지 일이 너무 바쁜 관계로, 캐나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출국하게 됐어요. 처음 방문한 것이라 낯설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과 함께 인터넷을 찾아보고, 교통편을 모를 때는 함께 걸기도 하며 새로운 경험들을 공유한 것이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었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선배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하며 하나씩 변화시켜 출근길이 행복해지는 직장을 만들어 가고 싶네요.



삼정인들과 Purpose로 공감대를 형성하다

천성협 S.Manager (B&F2)

지난해 11월에 방문한 밴쿠버는 20일 이상 비가 온다고 했어요. 걱정이 앞섰지만, 도착한 다음날 예술가, 힙스터의 동네라는 '그랑빌 아일랜드'를 둘러봤고 동료와 밴쿠버의 유명한 수제맥주를 마시며 연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밴쿠버의 날씨는 많이 추웠고, 조금은 따뜻한 곳에 다녀오고 싶어서 주말에는 LA에 다녀왔어요. 어릴 때부터 박찬호 선수의 팬이라 LA다저스 스타디움은 꼭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알아보니 매일 스타디움 투어가 있었고 감격스럽게도 투어를 통해 박찬호 선수가 밟은 흙도 밟아보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연고지를 뉴욕에서 LA로 이전할 때 물품들을 포장한 박스를 스타디움 한 곳에 전시해 둔 것인데요, 구단의 역사를 위해 사소한 것까지 보관, 기록하는 이들의 습관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밴쿠버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동료들과 밴쿠버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추억을 쌓았어요. 처음 만난 타 본부의 KPMG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Refresh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함께 Purpose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KPMG에서의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7. 꿈에 그리던 LA다저스 스타디움
8. 힙스터 동네, 그랑빌 아일랜드



IA/FR본부 엄수진 Manager

니가 가라 하와이! 화산섬 '빅아일랜드'

전 세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로 꼽히는 하와이.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오푸섬이 본섬이며, 이외에도 빅아일랜드, 마우이 등의 섬이 있다. 그중 빅아일랜드는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화산섬으로, 자연 그대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는 빅아일랜드를 엄수진 Manager가 소개한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여행 코스

힐로 공항 헬리콥터 화산 투어 킬라우에아 화산공원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농장 마우나케아 천문대
..... 커피 농장 푸우호누아 오 호나우나우 공원 사우스(South) 포인트 푸날루우 블랙샌드 비치

휴양과 관광을 모두 할 수 있는 곳, 하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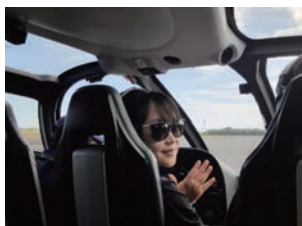
지난해 10월은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맞닿아 있어 9~10일에 달하는 황금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봄 즈음에 미리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황금연휴를 반 년이나 앞둔 시점부터 여행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와 유럽은 많이 가봤지만 태평양 쪽은 여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괌, 피지 등 해당 지역 여행지 위주로 후보를 추렸다. 하와이는 조금 식상할 것 같아 처음에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후보 여행지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와이 고유의 매력을 알게 됐다. 바로 하와이를 이루는 다양한 섬들의 '어린 나이(?)'였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아시아 대륙은 생성된 지 수억~수십억 년인 반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하와이의 섬들은 생성된 지 80~300만 년 정도라고 한다. 때문에 하와이에 가면 왠지 '젊은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하와이로 묶이는 다수의 섬이 서로 유사하지 않고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오아후, 빅아일랜드, 마우이 모두 방문하고 싶었지만 일정 상 호놀룰루로 대표되는 오아후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빅아일랜드 두 곳을 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녀온 결과, 하와이는 휴양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박물관, 맛있는 스테이크까지 예상치 못한 다채로운 기쁨을 안겨줬다. 삼정KPMG 가족들에게도 하와이의 멋진 매력을 소개해본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Bes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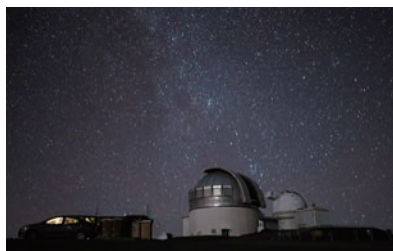
① 힐로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본 붉은 용암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땅이라 산의 고도도 낮은 편이고 화산 활동도 사실상 없다. 반면, 빅아일랜드는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으로 아직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지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생애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타 보았는데, 이륙하기 전에 매우 긴장했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1~2초만에 헬기가 떠서 너무나 신기했다. 높은 하늘로 올라가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빅아일랜드 섬을 한눈에 내려다보니, 인당 30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육안으로 직접, 아직 끓고 있는 붉은 용암을 발견한 순간에는 전율을 느꼈다. 용암 내 기포가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모습이 보였다. 기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해안가로 흘러내린 용암이 새로운 육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섬이 아직도 커지고 있다 한다. 또한 불과 3년 전인 2014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어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용암이 흘러내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② 마우나케아 천문대 가는 길목에서 바라본 별들



빅아일랜드는 가장 높은 지대가 해발 4,200m에 달한다. 마우나케아 천문대는 바로 이 고지에 위치한 시설로서 '마우나케아'

는 산의 이름이다. 항상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기후에 상관없이 별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 도착했는데 천문대는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방문하지 못했다. 그러나 천문대 가는 길목에 있는 공터에서 별구경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기 전부터 주차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별이 수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지 김치 컵라면도 판매되고 있었다. 우리 일행 모두 1인 1컵라면을 먹으며 검은 도화지에 설탕을 쏟아놓은 듯한 밤하늘을 감상했다.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다. 빅아일랜드에는 열대우림, 현무암 지대, 초원 등 여러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를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③ 원주민의 삶을 한눈에, 빅아일랜드 국립역사공원

현지 명칭은 '푸우호누아 오 호나우우 공원'인데, 발음이 어려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빅아일랜드 국립역사공원'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다. 고대 하와이언들 중 신성법을 어긴 자들



이 모여서 살던 곳이지만 이들의 삶이 다른 하와이 원주민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성 석상과 여성 석상이 짝을 지어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세워져 있는데 그 바로 뒤로 움막이 있다.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시대 관련 지식을 떠올려 보면, 아마 두 석상이 악귀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그 수호신 바로 뒤에 거주지를 잡은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원주민들이 춤을 추고 신을 향한 경배 의식을 행했던 넓은 바위도 있었는데, 현대의 무대와 유사한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다. 예전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테이블과 의자도 보았는데, 바둑과 유사한 게임을 한 흔적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식사용 뿐 아니라 오락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빅아일랜드 간다면, 이곳도 놓치지 말아요!

1. 가족 및 지인을 위한 하와이 기념 선물을 살 때는 마카다미아 농장과 커피 농장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맥주 안주로 적절한 캔 마카다미아 뿐 아니라 마카다미아에 밀크 초콜릿을 입힌 제품을 농장에서 살 수 있는데, 내가 방문한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공장에서 마카다미아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유리 창문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커피 농장에서는 로스팅 레벨에 따라 부드럽고 연한 원두부터 쓰고 진한 원두까지 종류별로 쇼핑이 가능하다. 마카다미아 농장보다 커피 농장이 좀 더 규모가 아가자기하고 수가 더 많으며, 주로 섬 남쪽에 밀집해 있다.



2. 블랙샌드 비치에 가면 성인 몸통 크기만한 거북이들을 볼 수 있다. 울타리 같은 것으로 분리된 것도 아니어서 거북이 바로 옆까지 갈 수 있다. 단, 거북이를 만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등껍질이라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실제로 블랙샌드 비치에서 거북이들을 만났는데, 까만 모래사장과 어울려 미동도 없이 해변에서 파도를 맞으며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고 신기했다.

3. 빅아일랜드의 사우스 포인트에서 즐기는 절벽 다이빙도 놓칠 수 없는 장소이다. 10~20대 젊은 사람들이 아찔한 절벽 다이빙을 즐기는 곳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장면을 즐길 수 있다.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의 문화와 에티켓

네덜란드는 간척지가 국토의 1/3을 이루고, 영토의 1/4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이다. 물과의 끝없는 다툼이 고유한 협동 문화를 낳아 개인주의와 집합주의가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네덜란드의 문화와 에티켓에 대해 네덜란드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옥정오 Director를 통해서 살펴보자.

Go Dutch!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용어는 ‘더치페이(Dutch Pay)’입니다. 사실 이 말의 어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 간의 해상 무역권 다툼이 치열하던 17세기 무렵부터 돈만 밝히고 인색한 네덜란드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음식값에 대해서 누가 먼저 식사를 제안한 것에 상관없이 각자 자기 것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거나, 대접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만약 네덜란드 사람이 상대방의 음식값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면 식사 전에 반드시 손님으로 대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왔을 때 저를 도와준 몇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자고 제안했고, 제가 당연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제가 사겠다는 제안에 난색을 표했고, 그냥 각자 자기가 먹은 것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6명이 차례로 계산을 하는데 식당에서도 전혀 싫어하는 내색은 없었습니다. 업무 관계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점심을 같이하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시간은 절대 방해 금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족과의 저녁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항상 테이블 주위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녁 6~7시에는 누군가의 집에 들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메시지나

이것만은 꼭! 네덜란드 Etiquette Plus+

1 네덜란드 사람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팅에 참여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먼저 자기 소개를 해야 한다.

2 네덜란드 사람들은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악수를 하는 편이다. 힘이 빠진 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악수에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거나 자립심이 없는 사람으로 단정 짓기도 한다. 힘찬 악수는 자신감과 개성의 표현이니 네덜란드 사람과는 반드시 힘차게 악수하자.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방해가 될만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KPMG 사무실에도 6시 이전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야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과의 저녁식사 시간 이후 집에서 일을 합니다.

직급은 생략하고 서로 이름을 부른다! 수평적인 협업 문화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팅에 참석하는 누구라도 발언권이 주어지며,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호칭도 상대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급자나 고객사 고위직에도 그냥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Engagement Manager로 참여하는 감사팀에서 네덜란드 팀원들이 'Sir'나 'Mr./Mrs.'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1, 2년 차 Trainee들도 Partner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과 미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상급자에게만 악수를 한다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에티켓입니다. 남성과 여성,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선물을 준비한다면 모두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있는 방문 약속은 필수!

네덜란드에서는 친구나 친척을 방문할 때에도 미리 정확한 시간을 잡아 약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약속 없이 방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사전 약속이 더욱 중요하며,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최소 한 달 전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더욱 미팅에 관심이 있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스케줄을 조정해 보려 노력하지 않고 바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 안내



1. Canal Boat tour, 부서 화식 모습 2. KPMG 100주년 행사에서
3. 세계문화유산 킨더다이크 풍차 4. 세계 최대 꽃 축제 '큐켄호프'

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을 바꾸려 하는 것은 프로답지 않다는 인상을 줌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성은 감사 계획에서도 나타납니다. 네덜란드 감사팀은 12월 법인의 중간감사와 기말감사 상세 일정을 6~7월경에 대부분 확정합니다. 이후에 신규 감사가 생기거나 스케줄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일정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CONTACT US

네덜란드 KOREA DESK 옥정오 DIRECTOR

Tel. +31206 567527 E-mail. Ok.Jeongoh@kpmg.nl



Global Etiquette



3 집에 초대된 손님이 떠날 때 문까지 같이 가야 하고, 날씨가 추우면 따듯한 바깥으로까지 나가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손님이 차에서 벗어날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어야 한다. 손님이 떠나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4

집게손가락을 귀에 대고 움직이면 '너 미쳤다'는 뜻이 아니라 '전화가 왔다'는 뜻이다. 미쳤다는 의미는 집게손가락으로 이마 중앙을 두드리는 것이며,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니 하지 않도록 한다.



네덜란드 Korea Desk

네덜란드 Korea Desk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현대중공업, 한국석유공사, KEB하나은행, 한솔제지 등 한국 기업들에 회계감사, 세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심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꾸준히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동반자로 활동하며 삼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이거 하나면 인테리어 분위기 UP!

지친 하루에 힐링을 더해주는 쉼의 공간
집. JP본부 정소윤 Associate는 집을 더욱
분위기 있게 연출해주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에 나섰다.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서
더욱 즐거웠다는 무드등 만들기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맨 좌측부터 JP본부 정소윤 Associate, 김소정 Associate, 남희수 Associate, 정다운 Associate

동료들과 함께라면 기쁨은 두 배!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신입 회계사로 입사한 JP본부 정소윤이에요. JP본부에 소속되어 동기들과 또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1년 선배이신 정다운 회계사를 비롯해 동기인 남희수, 김소정 회계사님들과 각자의 생일 때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작은 케이크를 두고 생일을 축하하는 등 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 업무 공간을 벗어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Talk+Play+Love'에 신청하게 됐어요. 어떤 체험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새롭게 이사한 집에 인테리어를 꾸미면 좋을 것 같아, 무드등 만들기를 추천했어요. 모두들 '인테리어 소품으로 딱 좋다!'라며, 만장일치로 무드등 만들기에 나섰어요.



우연을 수집하는 곳에서 만든 분위기 가득한 무드등

어느 토요일, 우리는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기 위해 '우연수집'이라는 남산 옆에 위치한 작은 공방을 방문했어요. 아크릴 무드등이란, 아크릴판에 진동 펜과 조각칼로 원하는 도안을 선택해 그 도안에 맞게 조각하는 것인데요, 등을 켜를 때 조각 낸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서 원하는 스타



일로 무드등이 완성돼요.

우리가 체험한 날이 2월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도 많이 불고 체감 기온도 낮아 체험 시작 전부터 후회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공방에 들어서자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이 많아서 모두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것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한 아크릴 무드등부터 눈으로 봐도 포근포근한 알파카 인형까지 공방에 예쁜 소품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다시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체험에 임하게 되었어요. 특히,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기 위해 모인 다른 팀들과 달리 강사님께 질문 세례를 하며 엄청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를 때문에 강사님께서 조금 귀찮으셨을 것 같아요. 하하. 여러 질문 중 정다운 회계사가 사장님 성함이 ‘우연수’라, ‘우연수집’이라는 공방 이름이 탄생한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우연을 수집한다’는 의미라며 강사님이 당황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어 순간 다 같이 정신없이 웃을 수 있었어요.

뽀족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직접 아크릴에 도안을 그려가며 만드는 것이라 힘들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분위기 가득한 아크릴 무드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직접 만든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고, 동료들과 사무실을 벗어나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니 동료를 넘어서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에게 ‘힘’이 주는 존재가 되기를

이번 체험을 하면서 제가 ‘참 인복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나 처음 시작은 힘들잖아요. 저 역시도 신입으로 입사한 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시는 정다운 회계사님과 좋은 때나 힘들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을 주는 동기 남희수, 김소정 회계사님들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직장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오래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또 새로운 체험에 나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음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많은 삼정 KPMG 가족분들도 ‘Talk+Play+Love’를 통해 동료애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만드시길 바랄게요.

우연수집

나무와 못과 실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스트링아트 액자, 아크릴에 그림을 그려 만드는 무드등 등 원데이 클래스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고 배울 수 있는 문화공방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62 (회현역 4번 출구 / 서울역 10번 출구)

■문의: 02-778-0759

삼성인에게 물어본 KPMG Story!

지난 4월 25일, '삼성KPMG FY2018 사업전략 발표회'에서는 삼성KPMG 가족들이 생각하는 KPMG Story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됐다. Purpose, Values, Vision, Strategy, Promise로 구성된 KPMG Story의 요소 중 Purpose, Values, Vision에 관해 삼성인들은 본인들의 생각을 진지하게 대답했다. KPMG Story를 만들어 가는 삼성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자.

Purpose : Why we are here
KPMG의 Purpose는?



남한솔 Analyst (Deal Advisory5)

삼성KPMG라고 하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진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이루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S.Senior (ATO)

고객사나 다양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태형 S.Senior (ICE1)

가장 합리적인 선택, 현재에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Ortiz Miguez Maria Teresa S. Analyst (Deal Advisory 6)

우리의 업무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일하는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냅니다.

Value : What we believe in

나에게 KPMG Value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 Value는?



고순영 S.Analyst (Deal Advisory1)

모든 7 Values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찰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추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익수 Analyst (Deal Advisory4)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 서로 오픈 하고 소통함으로써 좀 더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천욱 Manager (JP)

Manager로서 그 중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조직 내에서 선 후배와 아울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Values는 조직에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여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Vision

: What we want to be
KPMG의 Vision은?

조상용 S.Manager (인도 Korea Desk)

삼정KPMG의 미래 모습은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낼 거라 믿습니다. '그 일! KPMG를 찾아가봐! KPMG에 누굴 만나도 해결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모습이 The Clear Choice가 아닐까요?



이동화 Manager (DT & FS TAX)

우리가 하는 일은 전문가로서 본인의 발전을 이루고 고객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함께 우리 법인이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고현준 Director (SCG1)

외부적으로는 고객들이 신뢰하고 찾는 **Trusted Advisor**로서 The Clear Choice가 되었으면 하고, 내부적으로는 개인으로서 수많은 Professional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NEWS

‘2018 KPMG 한·일 Partner Summit’ 개최

한·일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자리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KPMG 일본의 주최로 도쿄에서 ‘2018 KPMG 한·일 Partner Summit’이 개최됐다.

‘한·일 Partner Summit’은 삼정KPMG와 KPMG 일본의 교류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6년 9월에는 삼정KPMG의 주최로 서울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삼정KPMG 김교태 CEO와 KPMG 일본 사카이 히로유키 이사장을 비롯해 양 법인의 Function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하여, 양국의 비즈니스 현안 및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양국 Function을 비롯해 Global Korea Desk와 Global Japan Desk의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삼정KPMG는 KPMG 일본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 진행 중인 주당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듣고, 오피스 운영에 대한 답을 구했다.

한편, 행사 첫날 Welcome Dinner에 KPMG International 빌 토마스 회장이 참석하여, 삼정KPMG와 KPMG 일본을 격려했다. 빌 토마스 회장은 “KPMG 한국과 일본은 ASPAC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KPMG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향후 KPMG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1



2



3



4



5

1.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8 KPMG 한·일 Partner Summit’ 2. ‘2018 KPMG 한·일 Partner Summit’ 단체 사진 3. KPMG 일본 사카이 히로유키 이사장(좌측)과 삼정KPMG 김교태 CEO(우측)가 악수를 하고 있다
4, 5. Welcome Dinner에 KPMG International 빌 토마스 회장이 참석해 한국과 일본 KPMG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국 주니어들의 교류를 위한 ‘한·일 친선 축구대회’ 첫 개최

승패는 사이 좋게 나눠 가져

지난 4월 7일, 삼성KPMG와 KPMG 일본의 축구 동호회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삼성KPMG와 KPMG 일본은 ‘2018 한·일 Partner Summit’으로 파트너들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주니어들 간의 교류 및 친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양국의 선수들은 열정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동호회 활동으로 그간 갖고 닦은 축구 실력을 뽐냈다. 접전 끝에 삼성KPMG와 일본 KPMG 동호회 선수들 간의 경기 승리는 KPMG 일본이 가져갔다.

하지만 이어진 경영진 간의 축구 경기에서는 삼성KPMG가 승리를 거둬, 1승 1패로 서로 사이 좋게 승패를 나눠 가졌다.

삼성KPMG와 일본 KPMG 간의 첫 친선 축구경기였던 만큼 양국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국 주니어들 역시 처음으로 나눈 단합의 시간에 흡족해하며 앞으로의 업무적 협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삼성KPMG와 일본 KPMG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트너를 비롯한 주니어들 간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 ‘한·일 친선 축구대회’ 단체 사진 2. 첫 MVP를 수여 받은 삼성KPMG 전기범 Associate



삼성KPMG 축구 동호회원들의 미니 인터뷰!

Q. KPMG 한·일 친선경기 어떻게 이뤄졌나요?

임수 Director (축구팀 감독)

우리 축구 동호회원들은 ‘Big4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린 후 국경을 넘어 ‘KPMG 한·중·일 대항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후 ‘한·일 Partner Summit’을 계기로 주니어들 간의 화합을 위한 자리로 꿈에 그린 KPMG 한·일전이 성사됐어요. 기말 시즌 후 체력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힘껏 뛰어준 동호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특히, 한·일 친선전을 진두지휘해주신 김교태 CEO님 및 파트너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Q. 경기를 한 소감은 어떠한가요?

허승훈 S.Manager (축구팀 주장)

먼저, 일본 KPMG가 이번 경기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탄탄한 조직력은 우리 동호회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꼈어요. 무엇보다 곧 열릴 Big4 축구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 듯해요. 또한, 경기 이후 일본 KPMG 선수들과 함께 한만찬은 축구뿐만 아니라 일본 KPMG 구성원의 업무 환경, 문화, 생활 등을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였어요.

Q. 5월에 열리는 Big4 축구대회 각오 한 말씀!

이승훈 S.Analyst (축구팀 총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 준비 과정에서 좋아하는 운동을 동호회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동호회에 가입하고 다른 본부에서 온 분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친해지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올해도 함께 경기를 준비하면서 동호회에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모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광의 우승컵을 3년 연속 들어 올리고 싶어요.

NEWS

헤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치유 콘서트 진행

Junior를 위한 사내특강 '나를 바꾸는 시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헤민 스님이 삼성KPMG를 찾았다. 삼성KPMG는 지난 4월 6일 '나바시'에 헤민 스님을 초청하여 힐링 특강을 개최했다.

'나바시'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삼성KPMG는 지난 1월 4일 박용후 관점 디자인 특강을 첫 시작으로 Junior직급을 위한 사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 삼성KPMG 임직원 2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헤민 스님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완벽하지 않고 문제투성이로 가득한 삶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따뜻함을 배우며 마음을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임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이 행복해지는 '나바시'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5월 24일에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빅데이터에서 마음을 캔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 헤민 스님이 전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특강 어땠나요?

헤민 스님은 책으로만 여러 번 접했었는데, 법원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덕분에 실제로 만나 뵈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값진 시간이었어요. 특히,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헤민 스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았고, 깊게 고민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또, 너무 유명한 분을 직접 뵈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여서, 강의 전부터 엄청 설렜어요.

모두 다 만족스러웠어요. 시즌이 끝나고 힘든 마음을 헤민 스님의 강연을 통해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 듣고 싶었던 헤민 스님 강연인데, 회사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좋았어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처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삼성KPMG, 1분기 M&A 재무·회계자문 부문 1위로 상쾌하게 출발

삼성KPMG가 2018년 1분기 인수·합병(M&A) 재무 및 회계자문 부문 모두 1위에 오르며 업계 최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주요 언론 매체들이 집계한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삼성KPMG가 신세계 그룹의 인테리어 전문기업 까사미아 인수 거래 재무자문을 비롯해 SK증권, 식자재 유통업체 원플러스 재무자문 등을 맡아 총 5,954억 원 규모의 거래 실적을 거두며 4대 회계법인 중 1분기 리그테이블 1위를 기록했다. M&A 회계자문 부문에서는 CJ헬스케어 인수 회계자문을 앞세워 1조3744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1위를 차지해,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2018 ‘신입 컨설턴트 입문 교육’ 진행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삼성KPMG는 2018 상반기 Advisory 신입 공채를 위한 입문교육인 ‘Advisory Fundamentals’를 진행했다. 신입 Advisor들은 다양한 팀 활동 및 선배들의 강의에 참여하며 삼성KPMG가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가치 등 법인의 일원으로서 기본 덕목 및 신뢰와 자부심을 갖췄다.

삼성KPMG, WCD 발전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가져



삼성KPMG는 4월 23일 본사 교육장에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omen Corporate Directors, WCD)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삼성KPMG 한은섭 COO가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현장에는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대표 푸르덴셜생명 손병욱 회장과 많은 WCD 회원들이 함께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다양한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기업 니즈를 반영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금융기업 정보보호 GRC 추진 전략’을 개최했고, 4월 20일에는 한국회계정보학회 주관으로 열린 ‘어카운팅 허브체계 도입 세미나’를 후원했다. 4월 27일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회계 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짚어보고, 내부회계 규제 대응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내부회계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제정립 등에 대해 제언했다.

NOTICE

▶ 삼성KPMG 부동산 세미나

- 주제 : 호텔 및 리테일 부동산 개발의 현재와 미래
- 일시 : 2018년 5월 15일(화) 13:30 ~ 17:0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본관 3층 컨퍼런스룸(남) 307호
- 문의 : 위정연 과장 (02-2112-3929, jeoungyeonwee@kr.kpmg.com)

▶ 삼성KPMG IFRS16 세미나

- 주제 : IFRS16 새 리스 기준서 도입 대응전략
-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 14:00 ~ 17:00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문의 : 신정민 대리 (02-2112-7731, jungminshin@kr.kpmg.com)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